

경북도민일보

02월 21일 006면

육상대회 유치 특委

거리 홍보활동 전개

대구시의회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 8시 중구 공평네거리에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IAAF의 현지실사단 방문에 대비해 대회유치 및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대적 거리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대구시 중구지회 회원 200여명이 참여해 IAAF의 현지실사단 대구 방문에 맞춰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대한 범시민적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이날 거리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등 대구가 대회개최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장욱기자 gimju@